

대학생의 부자유친성정이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최 명 선¹⁾

문 은 미²⁾

동신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본 연구는 대학생의 부자유친성정이 자아정체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최상진(2000)이 한국문화적 특성을 바탕으로 개념화한 부자유친성정(父子有親性情, 부모와 자녀간의 감정·의식 동일체적 친애관계)의 자아정체감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연구대상은 대학(원)생 538명이었으며, 측정도구로 부자유친성정 척도와 한국형 자아정체감 척도를 사용하였고, 자료분석은 상관분석과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자유친성정과 자아정체감은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생의 부자유친성정 가운데 자녀가 지각한 아버지와의 일체감을 높게 지각할수록 주체성, 목표지향성, 주도성, 친밀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여자 대학생의 경우에, 자녀가 지각한 아버지와의 일체감을 높게 지각할수록 주체성과 친밀성이 높아졌으며, 자녀가 지각한 아버지의 헌신감을 높게 지각할수록 친밀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우리 문화적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상담모델 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부자유친성정, 자아정체감

* 본 논문은 2008년도 한국인간발달학회 추계학술대회 포스터 발표논문을 확장한 것임.

1) 동신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2) 교신저자 : 동신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박사과정 (E-mail : anne332@naver.com)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부모자녀관계는 인간의 성격형성에 가장 중요한 변인이며(Bronfenbrenner, 1979) 인간의 전 생애에 걸쳐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이다. 우리나라의 부모자녀관계는 친밀감을 바탕으로 한 부모자녀간 동일체적 관계의 특성을 보인다. 최상진(2000)은 한국의 부모자녀관계를 ‘부자유친성정(父子有親性情)’이라는 개념으로 규정하였다. ‘부자유친성정(父子有親性情)’은 부모 자녀의 끈끈한 심정교류와 동일체적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부모에게 있어 자녀의 존재는 자신의 미래이며 자신의 못다 이룬 꿈과 목표를 이루게 해주는 존재가 되며, 자녀를 위해 심리적·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부모의 모습은 자연스럽게 보편적인 현상이다(김미숙, 김의철, 박영신, 2007; 김의철, 박영신, 2006; 박영신, 김의철, 한기혜, 2003). 또한,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부모가 베풀어주는 은혜에 대해 죄송함과 감사함을 가지며,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노력하는 특성을 지닌다(김혜은, 이진순, 2006; 박영신, 김의철, 2004).

우리나라 부모자녀관계에서의 이러한 문화적 특성은 서구와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다. 서구의 부모자녀관계는 합리성과 평등성을 근간으로 하는 특성이 있으며, 우리의 부모자녀관계는 ‘자(慈)’나 ‘효(孝)’라는 유교규범을 근간으로 하는 특성이 있다(박명석, 1993). 우리나라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 헌신하는 자기 절제를 ‘자(慈)’라 지칭하며, 자녀가 부모를

위해 헌신하는 자기 절제를 ‘효(孝)’라 지칭한다. Kim & Choi(1994)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와 같은 관계주의적 문화에서 부모는 자녀에 대해 자신의 모든 정성과 마음을 다해 아끼주며, 자녀는 부모의 그 아끼춤에 대해 그 마음을 헤아리고, 보답할 때 이상적인 부모자녀관계를 이룰 수 있다. 또한, 한국에서는 자녀가 결혼한 이후의 성인기에도 부모자녀관계가 매우 밀접하게 유지된다. 이러한 한국인의 우리성-정 관계문화는 대인관계의 핵심이 되며, 이런 문화적 가치는 부모자녀관계를 통해 전달 및 재생산되어 간다(김광웅, 문수경, 2005).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은 한국의 가족관계를 잘 대변해주는 표현으로 가족 상호간 ‘관계적 자기’를 만들어내는 존재양식을 의미한다(권수영, 2007). 이러한 우리문화와 서구문화의 차이는 Alan Roland(1998)가 진행한 인도인과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비교문화 연구에서 나타난 바 있다. 그의 연구결과, 서구적 관점인 개인주의 틀만으로는 동양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밝히고, 동양인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족체계에 드러나는 가족구성원들 간의 혼미한 경계 즉, 문화적 특징을 이해해야함을 강조하였다(Alan Roland, 1998). 한국에서는 부모안에 자녀가, 자녀안에 부모가 있는 상호의존적 관계를 가지게 되지만, 서구에서의 자녀는 그야말로 타인이며 부모자녀 간 연결된 느낌은 찾아보기 드물다(권수영, 2007).

청소년 시기는 한 인간이 이제까지의 의존적인 상황에서 벗어나 독립된 사회적 존재로 성장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만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청소년시기에 자아정체감 확립을 하게 되면 자신과 미래에 대해 명확한 인식을 하고 준비하게 된다(이영미, 김경화, 민하영, 2006). 특히,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감을 바탕으로 한 애착 형성은 유아기와 아동기를 성공적으로 보내도록 하고, 청소년기에 자아에 대한 탐색 및 분명한 자아관을 형성하도록 돕게 된다(Mahler et al., 1975).

이처럼 부모자녀관계 변인은 청년기에 이루어야 할 과업인 자아정체감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모자녀변인과 자아정체감 관련 변인에 대한 서구의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구에서는 청소년기에 부모자녀 간 정서적 유대가 강할수록 청소년의 개별화 및 성숙에 부정적 영향 및 심리적 부적응을 유발할 수 있다(Barber 1992; Barber et al., 1994; Beavers, Lewis, Gossett, & Philps, 1975)는 연구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반면, 우리나라와 같은 관계주의 문화에서는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 부모의 통제와 관심과 애정의 표시로 받아들여지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 Choi, 1994).

또한,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부모자녀변인과 자아정체감 변인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자유친성정이 높을수록 대인예민, 우울, 불안 등 부적응적 정서가 낮아졌으며, 자아분화, 대인관계 및 친사회적 성향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수영, 이재연, 2005; 이운기, 2005; 최인재, 2005). 또한, 정서적 부모화가 높을수록 대학생의 자아정체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은미, 최명선, 2008). 즉, 가정에서 가족과 부모를 대신해 정서적 가장 역할을 많이 했던 경험이 많을수

록 자아정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자아정체감의 성별에 의한 차이는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선행연구(박아청, 1984; 송설희, 1984; Marcia, 1980)를 살펴보면, 가치와 직업영역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더 높았으며, 가족과 성, 종교 영역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정체감이 더 높았다. 즉, 청소년기의 여자는 친밀감과 대인관계를, 남자는 자율과 성취를 더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송명자, 1995; Erikson, 1968). 우리나라의 관계적 특성 안에서 부모자녀관계 변인의 영향력은 남자(아들)와 여자(딸)에게서 어떠한 양상을 나타내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상기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부모자녀 간 자율성을 강조하는 서구와 관계성을 강조하는 우리나라의 부모자녀관계와 자아정체감의 관계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 문화적 관점에서 부모자녀관계를 조명하고, 우리나라 부모자녀관계변인과 개인의 심리사회적 발달 변인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본 연구는 소수의 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졌을 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여 개발된 ‘부자유친성정’은 대학생의 자아정체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한국적 부모자녀관계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아들과 딸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 어떠한 양상을 나타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우리 문화적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상담모델 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우리나라 대학생의 부자유친성정이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대학생의 부자유친성정과 자아정체감의 관계는 어떠한가?

2.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부자유친성정은 자아정체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1) 남자 대학생의 부자유친성정은 자아정체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 여자 대학생의 부자유친성정은 자아정체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변인	구분	N(%)
성별	남	279(52.2)
	여	254(47.8)
연령	20세 미만	279(52.3)
	21세-23세	121(22.7)
	24세-26세	133(25.0)
학년	1학년	231(44.8)
	2학년	92(17.8)
	3학년	110(18.2)
	4학년	82(15.9)
	대학원생	10(1.9)
	휴학	7(1.4)

※ 무응답에 따라 변인의 사례수에 차이가 있음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에 소재하고 있는 4년제 대학생 53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은 3개 4년제 대학의 협조를 통해 연구자와 대학담당자가 집단배포법을 실시하여 총 548부를 회수하였으며,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538부를 최종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을 표 1에 제시하였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부자유친성정이 자아정체감이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다음의 2가

지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부자유친성정

대학생의 측정도구로 최상진(2000)의 ‘부자유친성정(父子有親性情)’ 이론을 바탕으로 이장주(2002)가 개발한 부자유친성정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하위변인으로 일체감과 헌신감이 있으며,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자유친성정을 각각 20문항씩 측정한다.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방식을 적용하였다. 점수가 높은 경우에 부자유친성정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부자유친성정 하위요인들의 측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체감은 부모에 대해 자녀가 지각하는 믿음과 지지의 정도를 나타낸다. 헌신감은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헌신과 희생의 정도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자녀가 지각한 아버지와

의 일체감이 .93, 자녀가 지각한 아버지의 헌신감이 .90,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와의 일체감이 .91,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헌신감이 .90으로 나타났다.

자아정체감

대학생의 자아정체감을 측정하기 위해 박아청(1999)이 개발한 ‘한국형 자아정체감 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주체성, 자기 수용성, 미래 확신성, 목표 지향성, 주도성, 친밀성을 살펴보는 6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4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채점은 5점 Likert방식을 적용하였다. 점수가 높은 경우에 자아정체감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자아정체감 하위 요인들의 측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체성은 능력감, 즉 주관적인 역할 혹은 환경을 적극적으로 지배하고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느낌의 정도를 측정한다. 자기수용성은 자신에 대해 신뢰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미래확신성은 시간적 경과에 대한 희망의 정도를 측정한다. 목표지향성은 주어진 과업을 수행 또는 실현하려는 의지의 정도를 측정한다. 주도성은 자신의 역할에 대해 자신이 주도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친밀성은 집단속에서 한 구성원으로 자신의 노출정도를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주체성 .85, 자기수용성 .89, 미래확신성 .86, 목표지향성 .83, 주도성 .87, 친밀성 .85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대학생의 부자유친성정이 자아정체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3개의

4년제 대학생을 대상으로 2007년 9월 27일부터 11월 10일까지의 기간 동안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자 및 대학 담당자가 남녀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연구취지를 설명하고, 설문지를 배포한 후 설문지가 완성되면 바로 회수하는 집단배포법을 사용하였다. 설문지 작성소요시간은 20~30분가량 소요되었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을 위해 SPSS 12.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각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h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고, 부자유친성정과 자아정체감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과 표준중다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부자유친성정과 자아정체감의 관계

부자유친성정과 자아정체감의 상관을 분석하여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에 의하면, 주체성과 자녀가 지각한 아버지와의 일체감($r=.27, p<.01$), 자녀가 지각한 아버지의 헌신감($r=.22, p<.01$),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와의 일체감($r=.30, p<.01$),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헌신감($r=.24, p<.01$)은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자기수용성과 자녀가 지각한 아버지와의 일체감($r=.25, p<.01$), 자녀가 지각한 아버지의 헌신감($r=.23, p<.01$),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와의 일체감($r=.23, p<.01$),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표 2. 부자유친성정과 자아정체감의 관계

변인		자아정체감					
		주체성	자기수용성	미래확신성	목표지향성	주도성	친밀성
부자유친성정	부일체감	.27**	.25**	.25**	.26**	.19**	.26**
	부헌신감	.22**	.23**	.21**	.19**	.13**	.19**
	모일체감	.30**	.23**	.26**	.20**	.16**	.24**
	모헌신감	.24**	.24**	.21**	.16**	.13**	.21**

*** $p < .001$, ** $p < .01$, * $p < .05$

헌신감($r = .24$, $p < .01$)에 정적상관을 보였다. 미래확신성과 자녀가 지각한 아버지와의 일체감($r = .25$, $p < .01$), 자녀가 지각한 아버지의 헌신감($r = .21$, $p < .01$),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와의 일체감($r = .26$, $p < .01$),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헌신감($r = .16$, $p < .01$)은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목표지향성과 자녀가 지각한 아버지와의 일체감($r = .26$, $p < .01$), 자녀가 지각한 아버지의 헌신감($r = .19$, $p < .01$),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와의 일체감($r = .20$, $p < .01$),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헌신감($r = .16$, $p < .01$)은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주도성과 자녀가 지각한 아버지와의 일체감

($r = .19$, $p < .01$), 자녀가 지각한 아버지의 헌신감($r = .13$, $p < .01$),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와의 일체감($r = .16$, $p < .01$),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헌신감($r = .13$, $p < .01$)은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친밀성과 자녀가 지각한 아버지와의 일체감($r = .26$, $p < .01$), 자녀가 지각한 아버지의 헌신감($r = .19$, $p < .01$),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와의 일체감($r = .24$, $p < .01$),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헌신감($r = .21$, $p < .01$)은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즉, 부자유친성정과 자아정체감의 하위변인 전 영역은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이 지각한 아버지·어머니에 대한

표 3. 부자유친성정이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변인		자아정체감					
		주체성	자기수용성	미래확신성	목표지향성	주도성	친밀성
부자유친성정	부 일체감	.29**	.20	.20	.29**	.22*	.23*
	부 헌신감	-.14	-.01	-.06	-.08	-.09	-.12
	모 일체감	.09	-.00	.11	-.01	.03	.09
	모 헌신감	.07	.13	.05	.07	.07	.09
R^2		.09	.08	.08	.07	.05	.08
F		12.06***	9.84***	10.35***	9.35***	5.53***	9.80***

*** $p < .001$, ** $p < .01$, * $p < .05$

일체감과 아버지·어머니의 헌신감이 높을수록 자아정체감 수준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또한, 전체 대학생의 부자유친성정이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에 의하면, 부자유친성정이 자아정체감의 하위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체성($\beta=.29, p<.01$)과 목표지향성($\beta=.29, p<.01$), 친밀성($\beta=.23, p<.05$), 주도성($\beta=.22, p<.05$)에 대해 자녀가 지각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일체감만이 유의한 영향을 보이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이 지각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일체감이 높을수록 주체성, 목표지향성, 친밀성, 주도성 수준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2. 성별에 따른 대학생의 부자유친성정이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남자 대학생의 경우, 부자유친성정이 자아정체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여

표 4. 남자의 부자유친성정이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변인		자아정체감					
		주체성	자기수용성	미래확신성	목표지향성	주도성	친밀성
부자유친성정	부 일체감	.11	.10	.10	.25	.21	.02
	부 헌신감	-.03	.00	-.07	-.08	-.05	.11
	모 일체감	.16	-.02	.21	.04	-.03	.27
	모 헌신감	.11	.20	.07	.10	.14	-.07
R^2		.10	.07	.09	.09	.06	.10
F		6.87***	4.51**	6.33***	5.81***	4.11**	7.14***

*** $p<.001$, ** $p<.01$, * $p<.05$

표 5. 여자의 부자유친성정이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변인		자아정체감					
		주체성	자기수용성	미래확신성	목표지향성	주도성	친밀성
부자유친성정	부 일체감	.42**	.22	.25	.28	.16	.41*
	부 헌신감	-.23	-.01	-.06	-.08	-.11	-.35*
	모 일체감	.10	.16	.07	.04	.24	-.08
	모 헌신감	-.01	-.02	.02	.04	-.11	.27
R^2		.11	.11	.08	.08	.05	.08
F		6.37***	6.33***	4.25**	4.30**	2.92*	4.41**

*** $p<.001$, ** $p<.01$, * $p<.05$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에 의하면, 부자유친성정의 하위변인이 자아정체감의 하위변인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여자 대학생의 경우, 부자유친성정이 자아정체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여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에 의하면, 부자유친성정의 하위변인이 자아정체감의 하위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체성에 대해 자녀가 지각한 아버지와의 일체감($\beta = .42, p < .01$)이, 친밀성에 대해 자녀가 지각한 아버지와의 일체감($\beta = .41, p < .05$)과 헌신감($\beta = -.35, p < .05$)이 유의한 영향을 보이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여자 대학생은 아버지와 일체감을 높게 지각할수록 주체성과 친밀성 수준이 높아지며, 아버지의 헌신감을 낮게 지각할수록 친밀성 수준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IV. 논의 및 결론

1. 논의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자유친성정의 모든 하위변인은 자아정체감의 모든 하위변인과 정적인 상관을 나타내 부자유친성정이 높을수록 자아정체감 수준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는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와의 믿음과 지지 등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는 일체감과 부모의 희생과 헌신을 의미하는 헌신감이 높을수록 자아정체감의 모든 영역이 잘 형성됨을 의미한다. 부자유친성정

과 자아분화 및 대인관계성향은 정적상관이 있으며(박수영, 이재연, 2005), 심리정서적 부적응관련 정서와 부적상관이 있다는 연구(최인재, 2005)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에서는 ‘자율’ 변인보다는 ‘관계’ 변인이 자아정체감 형성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박영신과 김의철, 2004), 인간관계의 조화 속에서 자아정체감을 찾아 나간다는(최상진, 2000; 최인재, 2005)는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즉, 부모자녀관계에서 부모와의 일체감과 헌신감의 끈끈한 유대관계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정체감 발달을 잘 이루어진다는 결과이다.

또한, 대학생이 아버지와의 일체감을 높게 지각할수록 주체성, 목표지향성, 주도성, 친밀성이 높아졌다. 이는 대학생 시기에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형성이 자아정체감 형성에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부자유친성정이 높을수록 자아분화와 대인관계성향이 높아졌으며(박수영, 이재연, 2005; 이운기, 2005), 아버지와의 일체감이 높을수록 불안, 우울 등 부적응관련 정서가 낮아졌다는 선행연구(최인재, 2005)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기보다 청소년기로 갈수록 자녀가 지각하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자녀의 자아정체감 형성 등에 있어 훨씬 영향력이 커진다는 연구(최인재, 2005; Hosley & Montemayor, 1997)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아버지를 더 다가서기 어렵고, 삶에 찌든 아버지로 지각한다는 연구(최명선, 조선희, 2005)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형성은 청소년 후기에 중요한 변인이다. 즉, 본 연구를 통해 직업·취업 문제

등으로 인한 부담감이 커진 대학생 시기에 기록해야 하는 발달과업인 자아정체감 형성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남자 대학생과 여자 대학생을 분리해서 살펴보았을 때 남자 대학생은 부자유친성정이 자아정체감 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여자 대학생은 아버지에 대한 일체감을 높게 지각할수록 주체성과 친밀성 형성에 도움이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들보다 딸이 아버지와 더 많은 대화를 원하기도 하며, 실제로 대화를 더 많이 한다는 연구결과(이석경, 1987)에서 그 이유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여자 대학생에게 아버지에 대한 일체감에서 나타난 결과는 딸의 심리사회적 발달에 있어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 형성은 아들보다 더 중요한 변인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반면, 아버지의 헌신감을 높게 지각할수록 친밀성이 낮아졌다. 우리나라의 부모는 자녀에 대해 자신의 모든 정성과 마음을 다해 아껴주며, 자녀는 부모의 그 아껴줌에 대해 그 마음을 헤아리고, 보답할 때 이상적인 부모자녀관계를 이룰 수 있다는(Kim & Choi, 1994) 결과와 유사한 맥락이다. 우리나라의 자녀는 부모의 헌신에 대해 '효'로써 보답하려 하는 특성을 가지는 데, 딸은 아들보다 아버지와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아버지와의 관계(교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유추해 볼 수 있다(박영신, 김의철, 2004; 이석경, 1987; Kim & Choi, 1994).

또한, 아버지가 가족을 위한 헌신을 많이 한다는 것은 아버지가 그 만큼 바빠져서 자녀와 친밀한 관계형성을 이룰 수 있는 시간적·

물리적 기회를 가지지 못할 것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러한 원인으로 인해 자신은 물론 타인과의 친밀감 형성을 이루는데도 어려움을 가질 것이다.

남녀 대학生の 性別차이에서는 청소년기 남자는 자율과 성취를 더 중요시하며, 여자는 친밀감과 대인관계를 더 중요시한다는 주장(송명자, 1995)과 일맥상통하는 결과를 보였다.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인식도 남자 대학생보다 여자 대학생이 관계적 측면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 딸이 지각한 아버지에 대한 일체감과 헌신감만이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며 효도를 해야 가정이 행복해진다고 인식하며, 아들은 자신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공하는 등의 성취요인을 중요시하고, 딸은 자신이 더욱 근면·성실해지는 등 가정을 위한 헌신을 해야 한다고 인식한다는 연구결과(최중숙, 박영신, 김의철, 2003; 함병미, 박영신, 김의철, 2003)에서 미루어 짐작해볼 수 있다. 딸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친밀할수록 사랑받고 있다고 지각하게 되고, 나아가 주체성과 타인과의 친밀감 형성을 더 잘 이룬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자녀가 아버지의 헌신감을 높게 지각할수록 아버지와 교류가 적을 수밖에 없고, 친밀감을 형성할 기회도 제공받지 못하였으므로 자신과 타인에 대한 친밀감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또한, 여자 청소년은 아버지를 자신을 사랑해주는 존재로 지각하고 있다는 최명선과 조선희(2005) 연구

에서도 그 해답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딸에게 있어 아버지와의 끈끈한 유대관계와 일체감형성은 자아정체감 형성을 비롯한 청년기 심리 사회적 발달에 있어 매우 중요한 변인임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2. 결론

이상의 연구결과 및 논의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게 되면, 자신과 타인을 신뢰할 수 있게 된다(장휘숙, 1999). 특히, 우리나라 문화 속에서는 부모자녀의 밀접한 유대관계 형성이 청소년의 심리 사회적 발달과정에서 매우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교사상은 우리나라에서 과거에도 오랫동안 사회적 윤리로 존중되고 있으며, 현대에도 생활 속에서 매우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삼강오륜(三綱五倫)을 살펴보면, 부위자강(父爲子綱), 부자유친(父子有親)이라 하여 부모자녀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자녀의 심리사회적 발달에 있어 우리나라의 관계성을 강조하는 부모자녀관계는 서구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부모자녀관계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둘째, 최근 맞벌이 가정의 증가, 출산 감소, 주 5일제 근무 등의 사회 변화는 자녀의 심리 사회적 발달에 있어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역할과 영향력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관계, 특히, 아버지와의 정서적 유대관계가 자녀의 심리사회적 발달에 있어 매우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있어 부모와의 밀접한 관계형성이 중요하며, 특히 여자 청소년과 아버지의 친밀한 관계형성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의 경우 서구에 비해 관계성과 친밀성을 중시하는 문화이다. 부모에게 갖는 ‘일심동체적’의 식으로 부모는 자녀에게 자애를 자녀는 부모에게 효를 다함으로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의 청소년들은 부모와의 관계가 친밀하다고 느낄 때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수용과 미래에 대한 설계를 통한 자아정체감을 보다 잘 형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일반적으로 자녀의 심리사회적 발달에 있어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자아정체감 형성에 있어 어머니의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라 자녀가 요구하는 부모의 상(像)과 역할이 달라지기 때문일 것이다. 유아기와 아동기에는 동성부모에 대한 동일시가 심리사회적으로 중요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나, 청소년기에는 부모와의 심리적 분리를 시도하게 되고, 청년기가 되면 다양한 사회적 요구로 인해 적극적으로 자아탐색을 시도하게 되고, 자아정체감 형성을 위해 노력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가족관계의 특성상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애정적 보살핌과 헌신적 역할은 어느 정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시대적 변화에 따라 아버지의 역할이 더 중요시 되고 있음을 확인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밝히고, 후속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

있음에도 자기보고식 질문지의 특성상 불성실한 응답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부모자녀 관계를 알아보는 연구의 특성상 가족구조의 분포를 알아보지 않아 아쉬움이 있다. 추후 부모자녀변인의 연구에서는 한부모 가정, 조부모 가정, 국제결혼 가정 등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영향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후속연구에서는 자녀의 정체감에 대해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영향력을 자녀의 성별에 따라 명확히 규명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한국적 부모자녀의 관계성이 우리나라 대학생의 자아정체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알아보았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 문화 속에서 인간 심리를 이해하는 후속연구나 한국적 상담이론 및 상담모델을 개발하는데 유용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권수영 (2007). 한국인의 관계심리학. (주) 살림 출판사: 경기
- 김광웅, 문수경 (2005). 부모-청소년자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변인 연구: Bronfenbrenner의 관점을 중심으로. 청소년 상담연구, 13(1), 71-84.
- 김미숙, 김의철, 박영신 (2007). 유아 부모집단의 자녀가치에 대한 토착심리 분석. 아동 교육, 16(4), 57-74.
- 김의철, 박영신 (2006). 한국 사회에서 삶의 질을 구성하는 요인들에 대한 탐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2(5), 1-28.
- 김혜은, 이진순 (2006). 한국과 독일 청소년의 정서적 자율성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9(2), 21-40.
- 문은미, 최명선 (2008). 부모화 경험과 자아분화가 청년기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15(2), 103-122.
- 박명석 (2003). 동과 서. 서울: 탐구.
- 박수영, 이재연 (2005). 아동의 부자유친성정과 자아분화 및 대인관계성향간의 관계. 아동 학회지, 26(6).
- 박아청 (1984). 자아 아이덴티티에 관한 조작적 연구의 방향과 과제. 교육학연구, 22(2), 83-98.
- 박아청 (1999). 한국형 자아정체감 검사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5(1), 140-162.
- 박영신, 김의철 (2004). 한국인의 부모자녀관계: 자기개념과 가족역할 인식의 토착심리 탐구. 서울: 교육과학사.
- 박영신, 김의철, 한기혜 (2003). 아동과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지각: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9(2), 127-164.
- 송명자 (1995).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 송설희 (1994). 가족유형과 지각된 부모의 수용·거부가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옥경희 (1999). 청년기의 자아분화 정도 및 개체화 유형과 자아정체감 발달. 학생생활연구, 6, 17-34.
- 이석경 (1987). 청소년기 자녀와 아버지의 대화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영미, 김경화, 민하영 (2006). 육아시설 청소년

- 년의 자아정체감과 지각된 보육사의 정서적 지지에 의한 청소년의 성가치관. 가정관리학회지, 24(2), 165-175.
- 이운기 (2005). 자아분화와 우리의식을 매개로 한 한국적 부모-자녀관계가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장주 (2002). 부자유친성정 척도의 제작과 타당화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휘숙 (1999). 청년심리학. 서울: 학지사.
- 최명선, 조선휘 (2005). 청소년이 지각하는 아버지 상(像)에 대한 연구: 서울시 거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상담연구, 13(1), 55-69.
- 최상진 (2000). 한국인심리학. 서울: 중앙대학교 출판부.
- 최인재 (2005).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모·자녀관계의 문화적 특징: 부자유친성정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4), 1059-1076.
- 최중숙, 박영신, 김의철 (2003). 화목한 가정을 위한 가족의 역할에 대한 토착심리학적 분석: 한부모와 교육자 집단을 중심으로. 2003년도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함영미, 박영신, 김의철 (2003). 부모와 초등학교 자녀가 지각한 화목한 가정을 위한 가족의 역할: 토착심리학적 분석. 한국심리학회 2003년도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91-192.
- Alan Roland (1988). *In Search of Self in India and Japan: Toward a Cross-Cultural Psycholog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Barber, B. K. (1992). Family, personality, and adolescent problem behavio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 69-79.
- Barber, B. K., Olsen, J. E., & Shagle, S. C. (1994). Association between parental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control and youth internalized and externalized behaviors. *Child Development*, 65, 1120-1136.
- Beavers, W. R., Lewis, J. M., Gossett, J. T., & Phillips, V. A. (1975). Crucial variables in healthy family systems. *Dallas Medical Journal*, 61, 313-317.
-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Harvard University Press.
-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Y: Norton.
- Hosley, C. A., & Montemayor, R. (1997). Fathers and adolescents. In M. E. Lamb (Ed.), *The Role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3th ed., pp. 162-178). New York: Wiley.
- Kim, U., & Choi, S. C. (1994). *Individualism, collectivism, and child development*. In P. M. Greenfield & R. R. Cooking(Eds.), *Cross-cultural roots of minority child development*.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Mahler, M. S., Pine, F., Bergman, A. (1975). *The Psychological birth of human infant*. New York: Basic Books.
- 1 차원고접수 : 2009. 01 .02.
수정원고접수 : 2009. 03. 07.
최종게재결정 : 2009. 03. 09.

The Effect of Bu-Ja-Yu-Chin-Sung-Cheong on the Ego-Identity of University Students

Choi, Myung-Seon

Mun, Eun-Mi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Dongshin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Bu-Ja-Yu-Chin-Sung-Cheong upon the ego-identities of university students. Bu-Ja-Yu-Chin-Sung-Cheong (parent-child affective bonding) was first conceptualized by Sang-Jin Choi(2000) on the basis of Korean cultural characteristics. The participants were 538 undergraduate and graduate students. The instruments used for the study consisted of the Bu-Ja-Yu-Chin-Sung-Cheong Scale and Korean Versions of the Ego-Identity Scales. Correlations and multiple regressions were conducted for the purposes of data analysis.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positively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the Bu-Ja-Yu-Chin-Sung-Cheong and ego-identity. Additionally, higher levels of father's oneness presented higher levels of subjectivity, goal orientation, initiative, and intimacy. Second, female students' higher level of father's oneness showed higher levels of subjectivity and intimacy, while higher level of father's sacrifice presented lower levels of intimacy. The results of the study should provide body of basic data for developing effective counseling models for Korean adolescents from the Korean cultural point of view.

Key words : *Bu-Ja-Yu-Chin-Sung-Cheong, Self-esteem*